

01

[공주대학교-충남연구원 공동 세미나]

『19차 당대회로 보는 중국의 대외경제전략과 대응』

양 갑 용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19차 당대회로 보는 중국의 대외경제전략과 대응

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

들어가는 말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지난 2017년 10월 18일~24일까지 개최되었다. 당대회 폐막 후 다음날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9기 1중전회)가 개최되어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를 구성했다. 시진핑 주석은 당대회에서 “전면 소강사회 건설에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자(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는 제목으로 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 주제는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전면 소강사회 건설에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꾸준히 분투하자(不忘初心, 牢记使命, 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为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不懈奋斗)”는 것으로 사실상 중국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제시한 대회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미래 비전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계로 시선을 돌려 적극적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교통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 글로벌화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특히 중국과 세계가 함께 21세기를 함께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중국경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대회이기도 했다. 따라서 19대에서 논의된 많은 논의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에 관련된 내용은 향후 중국의 대외경제관계의 방향과 관련되어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대회이기도 하다. 적어도 시진핑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지도부는 중국이 이전과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중국을 새롭게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당대회의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자리는 그런 의미에서 당대회 보고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외경제전략의 내용과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번 당대회는 사실상 시진핑 2기 체제(2017-2022)를 맞아 중국의 국가전략 비전의 대강을 선보인 자리였다. 그 내용은 중국식 제도와 규범 그리고 담론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민족적 자신감을 높이고 대내적으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여 개혁개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보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중국은 현 정세를 비상한 도전이 예상되는 관건적 시기로 간주하고 새로운 이념과 리더십을 통해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개혁개방 40주년과 2021년 공산당 창당 100년을 준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건국 100년을 맞아 중국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중간단계로 2035년을 설정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중국의 대외경제전략도 복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 집권 2기의 모든 대외전략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맞춰져서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 바로 이번 당대회라고 할 수 있다.

당대회 보고에 나타난 중국의 대외경제전략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기에 앞서 중국은 현 시기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신시대로 들어가는 관건적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역사적 준비 시기가 바로 지금이고 중국은 역사적 전환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으로 중국의 역사 발전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아름다운 생활(美好生活)을 가능하게 해야 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담아내고 있다. 비록 보고에서 언급한대로 지난 시진핑 집권 5년이 지극히 평범하지 않은 5년이지만 사실상 이는 지난 개혁개방 40여 년의 전 과정이 평범하지 않은 역사 진화 과정이었다는 역사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즉 외부환경의 변화, 국내 정치상황 및 경제상황의 변화가 이제는 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틀을 바꿔야 하는 인식의 패러다임의 전면적이고 철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외경제전략의 변화 역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제약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는 12.5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13.5 계획의 순조로운 실시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 집권 2기에서도 13.5 계획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과 조치가 큰 틀에서는 변화 없이 추진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이미 시행되어오고 있기 때문에 변화보다는 기존 정책의 계승에 방점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큰 틀의 변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사고를 시진핑 2기에서는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변화의 지향점과 방향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실시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의 중단이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케 한다. 예를 들어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 창장(長江) 경제벨트 발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들 정책은 시진핑 집권 2기에도 큰 틀에서 변화 없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중국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중국을 이끌어갈 것이고 그 가운데 대외경제전략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설계하고 있는가? 이는 중국공산당이 역사적 사명에 답을 해야 하는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 대외경제전략 또한 이러한 역사적 사명과 유리되어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된다는 일종의 원칙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현대화를 위해서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중국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역사적 소명이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대외 전략 등이 모두 이에 복무해야 한다는 인식이 투사되어 있다. 중화민족의 문명사를 복원하고 중화문명의 새로운 창조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사회주의의 제대로 된 복원 혹은 강화가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부강하지 못하고 강대하지 못한 빈곤한, 유약한 사회주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즉 소련과 동구유럽이 실패한 사회주의의 복원을 중국이 재생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경제적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이 대외경제전략에도 스며들어 있다고 봐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이제는 사회주의 주류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마르크스주의를 잘 구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이번 당대회 보고에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방향은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반드시 연동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고에서 제시한 기본 방략 14가지 역시 이의 실현을 위한 일종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열네 가지 과제 가운데 경제전략 관련 부분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견지해야 하고, 발전과정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해야 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견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새로운 발전이념의 견지는 바로 중국이 향후 발전과정에서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의 발전이념을 확고부동하게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와 분배제도 등 공유제 경제를 견지한다는 전제 위에서 비공유경제의 발전을 계속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이 자원 배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추동하겠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 즉 향후 신형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 등 중국 경제의 각 영역에서 정부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향후 중국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즉 국가 개입적 경제발전 모델을 계속 강화해 가겠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무서운 속도로 세계 경제의 파이를 확대해 가는데 정부 역할이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기도 하다.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은 중국의 대외경제전략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지난 2017년 1월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기 시작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논의는 빠르게 탄력을 받아 중국의 대외전략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성 동력은 평화적인 국제환경과 안정적인 국제질서이다. 중국은 대외전략에서도 이제는 반드시 국내와 국제라는 양면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정책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평화 발전의 길과 호혜상생의 개방 전략에서 중국의 대외경제와의 호응은 이제 상수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평화의 건설자, 세계발전의 기여자, 국제질서의 수호자가 되려고 하고 이는 경제적 성과를 통해서 세계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향후 중국의 개방의 속도(速度), 심도(深度), 관도(寬度)가 이전 시기에 비해서 훨씬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이 한층 강화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데 시간표를 분명하게 다시 제시한 점도 중국 경제전략 변화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 13.5 규획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결정적 성과’를 내야한다고 시기 목표를 제시한 적이 있다. 그 목표는 대부분 다른 아닌 경제적 성과로 성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0년까지 목표로 제시된 목표를 당연히 완수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중국의 모든 자원이 이 목표 실현을 위해서 동원되고 배치될 것임을 의미한다. 2020년 이후 2050년까지 30년 동안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두 단계로 접근하여 본 세기 중엽에 반드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했다는 사실이다. 총서기의 이러한 언급은 중국의 모든 정책이 이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길에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보고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서 경제 실력의 증대, 과학기술의 제고, 문화소프트 파워의 강화, 발전격차 해소, 인민생활 향상, 사회관리의 향상, 생태환경의 개선 등 종합국력의

부단한 증대와 국제 영향력의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 핵심은 당연히 경제적 성과를 통한 부유한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부유한 국가는 강대한 국가로 나아가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이 보고에서 중국의 발전 과정을 일어서고, 부유해지고, 이제 강대해져야 한다는 언급과 동일한 맥락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경제관계를 포함하는 경제전략의 종결점은 바로 현대화된 경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발전 이념이 필요하고, 그러한 발전 이념은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당위성이 논리에 녹아들어 있다.

중국의 현대화된 경제체계 구축의 최종 목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혁 방향을 견지하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경제전략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 목표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혁 방향을 견지하고 지속적이며 건전한 발전이 향후에 핵심적이 경제 전략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성장을 계속하되 기존과 같은 지속적인 성장에만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발전’과 연동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적어도 중국의 발전이 환경 파괴적이고 에너지 소모형 구형 경제발전이 아니라 지속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연동시키는 발전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즉 중국은 성장을 계속하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성장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성장방식에서도 전환을 모색하고, 경제구조에서도 최적화된 모델을 찾아 성장 동력을 확대, 심화해 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 핵심 조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급측 구조개혁(供给侧结构性改革)이다.

보고에 의하면, 공급측 구조개혁은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 동력의 변혁을 추진하고,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고, 실물경제, 과학기술혁신, 현대금융, 인력자원이 협동 발전하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미시적 경제 주체가 활기를 띠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향후 구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현대화 경제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를 들 수 있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핵심은 실물경제의 질적 수준 강화이다. 즉 제조강국 건설 강화, 선진 제조업의 발전,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실물경제의 심층적인 결합, 고급 소비 유도, 저탄소 녹색성장, 공유경제, 서비스 등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점 육성 등을 들고 있다. 보고는 중국이 적어도 이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하고 또 찾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특히 관심을 두는 분야는 전통산업의 최적화와 고도화 그리고 이를 현대 서비스업과 결합시키는 문제이다. 구체적인 조치로서는 중국 산업의 글로벌 가치 공급 사슬의 진화,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육성 등을 들고 있다. 예를 들어 수리, 철도, 도로, 수상운송, 항공운송, 가스관, 전력망, 정보, 물류 등 기반시설 네트워크 구축 강화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우리의 대중국 협력 수준과 정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전략**도 경제체계 전환의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삼농(三农)’ 문제의 해결을 항상 당 전반 사업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한 점이다. 이는 시진핑 집권 2기 기간에도 빈곤탈출을 위한 노력과 함께 ‘삼농’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정책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 도농 융합발전,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 농촌토지제도개혁,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 식량 안보, 농업과 농민 지원제도, 현대농업발전, 1·2·3차 산업의

융합 발전, 농민의 취업과 창업, 농촌관리체계 등에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과 농민의 취업과 창업 방면 등 생활개선과 소득증대사업에서 성공적인 외부의 경험은 중국에게 반면교사가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지역 균형발전 전략도 중국 경제 변화에 중요한 관심 포인트이다. 개혁을 심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의 장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즉 지방의 최적화 발전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고는 이 부분에서 대도시, 중등도시, 소도시와 진(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도시 구조 구축 의사를 드러냈고, 농촌 이전 인구의 ‘시민화’를 가속화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대체할 것으로 발표된 징진지 협동발전의 모델로 거론되는 숭안신구의 건설 노력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숭안신구 발전은 또한 지역의 균형 발전 문제뿐만 아니라 천년의 대계라는 점에서 시진핑 집권 2기 시기에는 1기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폭넓게 추진될 가능성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장강경제벨트 발전도 이런 맥락에서 중시되어야 하는 경제발전 전략이다. 해양강국 건설 역시 지역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가급 발전전략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목해야 하는 부문임은 분명하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보완도 경제체계 관점에서 보면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경제전략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보고를 통해 재산권 제도 보완, 국유자산관리체제 완비, 국유기업 개혁 심화, 혼합소유제경제의 발전, 세계일류기업 육성, 시장접근금지목록제도 시행, 서비스업의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문제, 시장감독관리체계 완비, 조세제도 개혁, 지방세 체계 개혁 건전화, 금융체계개혁 심화,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서비스능력 강화, 자본시장 발전 촉진에 대한 중국의 정책 방향을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했다. 특히 혼합소유제경제 발전과 서비스업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중국 사업에서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밖에 자본시장, 금융시장 관련 전향적인 정책 방향 제시도 중국의 대외경제관계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국제표준과 부조화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점에서 비제도화 혹은 탈제도화된 중국 시장의 영향으로 중국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기업과 개인에게도 기회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개방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점도 중국 경제전략의 새로운 강조점이다. 중국 대외개방의 핵심 사업은 바로 ‘일대일로’ 관련 사업의 계속 추진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을 통해서 대내경제와 대외경제를 결합하고,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에 따라 육지와 해양, 내외 연동, 동부와 서부 결합 등에 기초한 개방형 경제구도를 형성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고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국 기업가의 투자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겠다는 것을 천명했다. 특히 중국 경내에 등록된 모든 기업은 중국 기업과 동일한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한 점은 주목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자유무역 시범구, 자유무역항 건설 등의 대외투자 측면에서 우리는 범세계적 무역, 투융자, 생산,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 경제 협력 및 경쟁에서의 새로운 우세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취업 질 제고, 인민의 소득수준 향상, 사회보장체계 구축, 빈곤퇴치, 건강한 중국 전략, 공유형 사회관리제도 구축, 생태문명체제 개혁 등 보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

역시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전략은 앞서 언급했듯이 지속가능한 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중국이 이번 보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과제 역시 이 부분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전한 발전 등도 중시하겠다는 전략의 강조점이 이전 보고와 다른 점이다. 예컨대 청산녹수, 금산은산, 생태문명 등은 19대 보고에서 새로 제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제시한 이러한 경제전략과 대외경제전략은 중국이 평화발전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 결국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으로 연결된다. 즉 중국의 대내외 경제전략은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복무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경제전략의 심화

중국은 현 세계를 대발전, 대변혁, 대조정의 시기로 규정하고 평화와 발전이 여전히 중요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즉 세계는 다극화되고, 경제는 글로벌화되며, 사회는 정보화되고, 문화는 다양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진단은 중국이 글로벌 관리체계와 국제질서의 변혁 과정에서 국가간 상호 연계와 의존성을 더욱 높일 것과 국제역량의 균형과 평화발전의 대세를 제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불안정성과 불확정성이 증가하고 세계경제의 성장 원동력이 부족하고 빈부 분화가 계속 심각해지는 상황 그리고 지역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테러리즘, 사이버안보, 중대한 전염성질병, 기후변화 등 비전통적인 안전위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일수록 꿈을 포기하거나 이상 추구를 포기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어떤 나라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며, 심지어 혼자 해결해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과 힘을 합쳐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평화롭고, 보편적으로 안전하고, 공동으로 번영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의 핵심은 과실을 서로 나누는 글로벌 경제동반자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동반자관계의 핵심을 여러 나라들과의 이익의 합류점을 확대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국과의 관계는 조율과 협력을 통한 총체적이고 안정되며 균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주변국과의 관계는 다시 친밀, 성실, 호혜, 포용의 이념을 발전시키고 심화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대외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사실이다. 즉 중국은 대외개방을 기본 국책으로 견지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그 핵심이 바로 ‘일대일로’의 적극 추진이다. ‘일대일로’를 통해 정책 소통(政策沟通), 시설 연결(设施联通), 무역 원활(贸易畅通), 자금 융통(资金融通), 민심 상통(民心相通)을 적극 실현하고 국제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며 공동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조할 것임을 이번 당대회에서 분명하게 공언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고 다자간무역체제를 지원하고 자유무역구 건설을 촉진해서 중국적으로 개방형 세계경제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따라서 시진핑 집권 후반기에는 ‘**일대일로**’ **건설 추진**이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9대 당대회 결의 이후 중국 경제전략과 대외경제 방향 변화

이러한 19대 보고를 기초로 중국공산당은 대표 대회 결의를 통해서 경제전략 혹은 대외경제관

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단계별 추진 사업을 비교적 명확히 제시하여 정책 변화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1)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 2)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 3) 2035년부터 이번 세기 중엽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즉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를 포함하여 적어도 본 세기 중엽까지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이며 문명화되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로드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모든 자원을 여기에 투입할 것이다. 물론 경제 영역에서도 예외는 있을 수 없고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중국이 내세우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개념 역시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아름다움 등 한층 분명하게 정리된 점이 바로 이번 당대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 1) 공급측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질적 변혁, 효율변혁, 동력변혁을 추진하고
- 2) 실물경제, 과학기술 혁신, 현대금융, 인력과 자원이 조화롭게 발전된 산업체계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 3) 효율적인 시장 메커니즘, 활기 있는 미시적 경제주체와 거시적 조정 역량을 갖춘 경제체제 건설에 주력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조 위에서 향후 중국은 향후 경제 정책 방향으로
- 1)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적극 추진과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여
- 2) 상호존중, 공평 정대, 협력 및 윈윈의 신형 국제관계 조성 및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추진
- 3) ‘평화가 지속되고 안전이 보편화되며 공동의 번영이 가능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청정하고 아름다운’ 세계의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전략의 추진에는 당연히 최고지도자로서 시진핑 주석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관행의 수용과 명분의 축적은 지도자의 의지에 의해서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19대 폐막식 연설에서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승리,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여정 시작”을 천명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야”고 강조한 것으로 봐서 중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가목표의 흔들림 없는 추진에 힘을 투사하고 있다. 특히 19기 1중전회 이후 선출된 정치국 상무위원 기자 접견회에서 시기별로 중국의 임무를 제시하여 실천 일정도 대외에 명확히 천명했다.

- 1) 2018년 개혁개방 40주년,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역량의 현대화 지속 추진
- 2) 201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 새로운 발전이념을 관철하여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 추진
- 3) 2020년,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 건설, 당과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빈곤 퇴치하고 인민이 함께 부유해지기 위한 노선 추진
- 4)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적극 추동 등을 과제 및 정책 추진 프로세스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의지는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일대일로’ 건설 강화를 위한 당장의 수정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중국공산당 장정(章程)에 명확하게 적시한 것이다. 먼저,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대한 임무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당장에 삽입한 것이다. 이를 석 자가 갖는 의미의 무게감이 정책 추진의 강력한 지원군과 동력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마르크스 중국화를 위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을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하는데 있어서 이른바 시진핑 사상이 경제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 매우 폭넓게 강조될 것이고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사상의 강조는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강화로 이어져야 함을 이번 당대회는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개혁과 발전은 반드시 훨씬 질 높고, 훨씬 효율적이며, 훨씬 공평하고, 훨씬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당장에 명확히 수록되었다. 이를 위한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신형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등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함을 당장은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데 있어서 환경과 생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의 추진을 천명했다. 이는 향후 중국이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 특히 생태문명, 환경보호 등 새로운 방식의 발전 패러다임으로 미래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의 대응도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다음으로, ‘일대일로’ 건설 추진을 당장에 분명하게 삽입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대일로’ 건설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장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삽입한 이상 향후 중국의 대외경제관계는 반드시 ‘일대일로’ 추진에 모든 정책 역량이 맞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실상 시진핑 집권 2기를 포함하여 중국의 모든 정책이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중국의 ‘일대일로’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대회 보고에서 적시하고 결의를 통해서 의지를 확인하며 시진핑의 언술과 당장의 명문화 과정을 통해서 중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해졌다. 적어도 본 세기 중엽까지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적극 나설 것이고 그 유력한 수단 혹은 방법은 바로 ‘일대일로’ 건설의 강력한 추진에 있다. 모든 정책과 조치가 바로 이 ‘일대일로’ 추진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을 어떻게 개념규정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고리를 찾아갈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국책으로 추진하고 특히 당장에 명확하게 삽입한 이상 ‘일대일로’ 건설이 퇴보하거나 약화될 가능성은 적어도 시진핑 집권 기간에는 없다고 봐야 한다.

우선, ‘일대일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과잉 유희설비의 해외 이전 혹은 강력하게 추진되는 일종의 마샬플랜 정도로 알고 있었던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한국과 지방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각 부문에서 어떻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협력 혹은 발전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갈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대일로’ 연선 지역의 지방정부의 협력의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다. 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뿐만 아니라 해양실크로드 연선도시나 지방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지방정부와 연선도시도 대부분 ‘일대일로’에 정책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연동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의 우세를 잘 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현시켜 강력한 비교우위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모든 지방정부와 연선도시가 ‘일대일로’에 적극 연결고리를 찾고 있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모두 해당 지방이나 도시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충남 역시 충남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기초로 ‘일대일로’ 협력에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남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비교우위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행위자들이 제3국을 상대로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여 함께 진출하는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 2014년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미 언급한 내용도 있어서 양국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리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19대를 통해서 중국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고, 특히 이를 당장에 삽입하여 중국이 계속해서 견지해야 하는 발전 방향을 명확히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대일로’를 국가적 아젠다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과장되게 말하면 중국의 향후 모든 정책, 특히 대외관계 변화는 이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움직여나갈 것이다. 우리의 전략은 중국이 이러한 움직임에 잘 편승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상호보완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혜를 모우고, 관련 개념을 명확히 하고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극대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가보다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공간 활용 지혜가 필요하다. 결국 모든 정책의 창구는 지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끝)